

공동성명
제 6 회 9 조세계종교인회의

헌법 9 조에 의한 세계 평화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2018 년 6 월 15 일
히로시마

일본국 헌법 9 조

제 1 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제 2 항

제 1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前文)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헌법 9 조는 우리에게 전력의 행사를 포기하는 길, 굳건한 토대로 국제적인 평화를 구축해 가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016 년 오사카회의 이후 세계의 상황은 절망과 희망의 사이를 오갔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기술에 의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는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또 하나의 사실 (Alternative facts) 」”에서 사실을 분리하여 진정 권위있는 정보와 행동 기준의 확인을 방해하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2017 년 유엔은 핵 보유국과 그 동맹국의 무시, 방해, 반대를 위한 기도(企圖)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과거 일관되게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에서 물러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하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시설의 폐기를 요구하며 “화염과

분노”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지난 4 월에는 대한민국(한국, 이하 한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번영과 평화, 그 결과인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단계를 그린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회담을 하였을 때 제 6 회 9 조세계종교인회의의 참가자들은 1945 년 8 월 6 일 세계에서 최초로 원폭의 피해를 당한 도시인 히로시마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 종교인회의의 개최 전날 밤, 참가자들은 히로시마평화공원에 모여 한반도의 종전과 한국전쟁에 대한 모든 당사자국의 무장해제를 향한 논의가 성공되기를 기도하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회의

제 6 회 9 조세계종교인회의에 참가한 우리 250 명은 일본(재일코리아인도 포함), 한국, 중국, 홍콩, 대만, 태국, 인도,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에서 이곳 히로시마국제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제 1 회를 2007 년(도쿄), 제 2 회를 2009 년(서울), 제 3 회를 2011 년(오키나와), 제 4 회를 2014 년(도쿄), 제 5 회를 2016 년(오사카)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참가자들 다수는 2012 년 후쿠시마에서 열린 <원자력에 관한 종교인국제회의>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에서 불의와 폭력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도 가해자임을 깨닫고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폭자의 증언을 듣고 핵무기 폐기를 더욱더 간절하게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1. 헌법 9 조는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평화의 맹세이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동아시아지역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일본은 주변국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고, 두 번 다시 불안정한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정부(자유민주당과 공민당의 연립정권)가 제 1 항의 전쟁포기와 제 2 항의 어떠한 전력의 보유도 금지한다는 평화의 맹세인 헌법 9 조를 개정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9 조에서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다수의 일본 헌법학자들이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년에 법제화를 강행하여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한 ‘필요’한 자기 방어 수단을 취하게 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9 조를 바꾸려는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인 대화에 기초한 외교와는 정반대로 향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9 조의 정신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평화적 대화인 외교에서 가장 잘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헌법 9 조를 지키는 행동을 응원하고 일본에서 헌법 9 조를 포함한 입헌민주주의를 지키며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구축을 향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2. 일본정부는 20 세기 전반기의 침략과 식민지주의 역사를 충분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죄하며, 그 반성을 명확히 세계 앞에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진정한 반성이 동아시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에 의한 부전(不戰)의 맹세이기도 한 헌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고노관방장관담화”와 “무라야마총리담화”에서 “간총리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반성하는 일본정부의 정식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 행동의 실천적인 효과로서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행한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라고도 불림)에 대한 말뿐인 합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재일코리안의 인권을 지키며 그들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서는 안 된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 문재인 정권에 불신감을 가지고 긴장을 발생시킨 것은 일본의 중대한 실수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약자 취급을 그만두고 경제적 제재를 폐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급성무이다.
3.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최종표명을 통해서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대화와 행동을 환영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1953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휴전상태에서 평화조약으로의 이행은 한반도의 분열과 긴장 시대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 행동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번영의 시대를 향해 문을 열수 있도록 기도하고 희망한다.
4. 전세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에는 인근 핵무기국에 의한 지원과 소극적 안전보장 (N S A) 의 아래에서 비핵지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피스 데포(Peace Depot)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한반도 2 개국(한국과 북한)과 일본은 핵무기 개발, 제조, 배치를 금지하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관련 핵무기 국가는 비핵무기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 내지는 공격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N S A 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적 안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신뢰 양성 조치와 커뮤니케이션과 긴장 완화를 향한 강력한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무급의 대화를 확립하기 위한 6 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5.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9 조정신에 따라서 모든 당사국이 대화와 외교 교섭을 통한 해결 노력을 제안한다. 우리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도록 여러 나라에 촉구한다. 이러한 무력행사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6.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오키나와와 이와쿠니,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 등 재한, 재일미군의 과중한 기지 부담의 경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이 미국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특히 미해병대가 일본에서 철수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한국 성주에서 철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7.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내셔널리즘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종교 안에 있는 평화를 촉구하는 가르침과 일본국 헌법 9 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조약캠페인에서 배워 반전, 화해, 평등, 상호존중, 호혜 관계를 쌓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동아시아에 여전히 평화의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 위기를 부추기고 위기를 전쟁으로 이어지게 해서 안 된다.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위기를 줄이고 신뢰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 6 회 9 조세계종교인회의 참가자 일동

2018 년 6 월 15 일

히로시마국제회의장

ⁱ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가 원인이 되어 일본에 재주(在住)하는 한반도 출신자와 그 자손들, 그리고 한반도에 기원(roots)을 가진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